

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이주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SBS·세계일보, 3.27) >

- ◆ “대기 300번대, 한없이 기다린다” ...말뿐인 ‘주거사다리’
- ◆ “주거사다리 강조한 정부, 매입임대 3만가구 줄였다”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쪽방·고시원 등 비정상거처, 반지하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사업(주거상향 사업)*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.

* 공공임대(전세임대, 매입임대 등) 우선 공급, 민간임대 보증금 대출 지원 등

○ ‘23년에는 이주 목표인 1만호를 초과달성하였고(10,671호), 이는 ‘22년 대비 50%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.

* (‘19) 3,905호 → (‘20) 5,502호 → (‘21) 6,026호 → (‘22) 7,036호 → (‘23) 10,671호

○ ‘23년의 경우, LH 매입임대 가격 제한 등으로 매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 이주 실적은 2,300호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

* (‘19) 711호 → (‘20) 1,070호 → (‘21) 1,531호 → (‘22) 1,959호 → (‘23) 2,296호

□ 올해는 1.3만호까지 주거상향 이주 가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

○ 특히, 매입임대의 경우 ‘24년부터는 매입단가 현실화, 건축단계별 품질점검 내실화 등을 통해 매입물량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한편, 입주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주거상향사업>	주거복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허경민 (044-201-4504)
		담당자	사무관	이민기 (044-201-4740)
담당 부서 <매입임대주택>	주거복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도곤 (044-201-4530)
		담당자	서기관	류경진 (044-201-4533)

